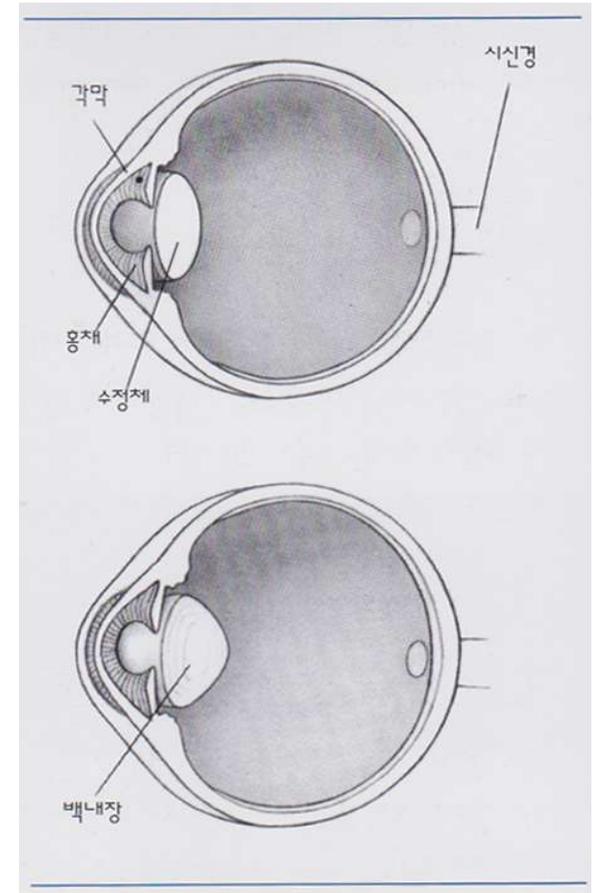


백내장

백내장이란?

건강한 사람의 눈은 수정체가 투명하여 빛이 잘 통과되므로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혀 물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하였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마치 창문에 수증기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더욱 심해지면 눈앞의 손가락도 잘 보이지 않으며, 자세히 관찰하면 검은 동자 속의 애기동자가 하얗게 백태가 낀 상태로 변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노인성 변화로 오는 것이 제일 흔하며 그 외에 선천성, 외상, 대사성 질병 (예: 당뇨병), 약물 (예: 스테로이드), 장기간에 걸친 자외선 노출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안구자체의 다른 질환 (예: 포도막염, 녹내장, 망막변성) 이 있는 경우, 혹은 전에 눈 속 수술을 받았던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진단

안과 의사의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백내장의 유무 및 정도를 알 수가 있으며, 다른 질환의 존재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백내장 이외에도 녹내장, 포도막, 유리체, 또는 망막이나 시신경을 침범하는 다른 질환으로도 시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아주 드물게는 전혀 시력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의 진행속도

백내장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같은 사람에서도 양쪽 눈의 진행속도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노화과정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백내장은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외상이나,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백내장 혹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개월 사이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백내장의 진행속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백내장의 치료

백내장은 수술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내장으로 인한 증세가 경미할 때는 수술이 필요 없고 안경도수의 변화만 주어도 어느 정도 시력개선이 될 수 있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일단 발생한 백내장을 치료하거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안약, 먹는 약, 식이요법, 운동, 특수 안경 등은 아직 없습니다.

백내장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셔야 합니다.

첫째: 내과에서 전신 종합검사를 받으셔서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철저히 치료를 받으실 것.

둘째: 술과 담배를 줄이지 마시고 완전히 끊으실 것.

셋째: 과도한 자외선 (예: 햇빛) 이나 적외선 (예: 사우나 속의 빨간 석탄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실 것.

넷째: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종합비타민, 노화방지제, 단백질, 야채 및 과일 섭취 등을 충분히 하실 것.

다섯째: 적당한 운동을 하실 것.

백내장의 진행을 억제하는 약들의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약을 사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

백내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시력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비로소 수술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술시기를 결정할 경우에는 각 개인의 직업, 운전 여부, 취미 종류, 일상적인 활동의 지장 여부 등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환자 자신의 필요한 시력과 전신 건강에 따라 수술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수시로 안과 의사와 상의하시면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정체가 부풀거나 혹은 혼탁된 수정체로 인하여 염증이 심해 녹내장이 합병된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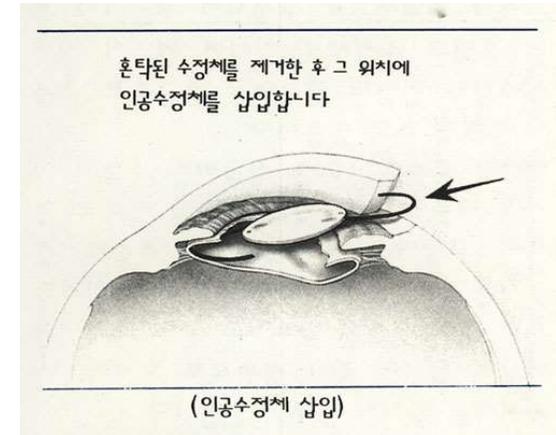
백내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로 시력이 저하될뿐만 아니라, 염증이나 녹내장이 발생하여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치게 되면 시력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100% 성공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일찍 받으실 필요도 없으며, 그렇다고 너무 늦추다가 수술시기를 놓치는 일도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안과 진찰을 받으시고 눈에 조그마한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수술시기를 놓치지 않고 안전합니다.

백내장 수술이란?

백내장 수술이라 함은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수술용 현미경하에서 작은 절개창을 통해 초음파나 레이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정체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 흡입하여 제거하게 되며, 이 때 후낭이라고 하는 세로판 같은 얇은 막은 남겨두게 됩니다. 수술 전 검사에 의하여 계산된 인공수정체를 원래 수정체가 있던 위치에 삽입하고 절개창을 닫게 됩니다. 인공수정체 삽입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넣지 않는 것이 더 좋거나 넣을 수 없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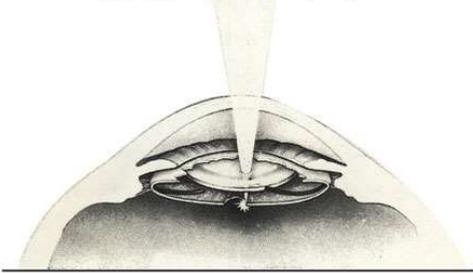
인공수정체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인공수정체 이외에도 난시까지 줄이거나 없애주는 난시인공수정체나, 먼 곳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다초점 난시인공수정체 등과 같은 특수 인공수정체도 있습니다.



백내장의 재발?

백내장 수술 때 남겨 놓은 후낭은 수술 후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약 10-30%에서 점차 혼탁이 발생하여 다시 시력저하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후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이 때 혼탁 된 막의 중심에 간단히 레이저를 이용하여 통증 없이 구멍을 만들어 다시 시력을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혼탁된 후낭에 구멍을 만들어서 시력을 회복 시킵니다.



(후발 백내장에 대한 레이저 치료)

백내장 수술 후 시력회복은?

백내장 수술은 성공률이 아주 높은 수술로서 약 98% 이상에서 시력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보다 더 잘 보기 위하여 원거리용 안경 착용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독서용 근거리용 안경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먼 곳과 가까운 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같은 특수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도 수술 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안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수술 초기에 야간에 빛 번짐, 달무리 현상, 눈부심 등 불편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시력이 불편한 경우에는 안경으로 교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안내염이나 인공수정체 위치이탈과 같은 특별한 합병증이 아닌 한, 인공수정체를 교체하는 방법은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추천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이외에 각막, 포도막, 유리체, 망막, 시신경 등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시력회복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동반되었는지의 여부는 수술 전에 발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내장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시력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예: 감염, 출혈, 녹내장, 각막부종, 망막부종, 망막박리, 복시, 밤에 불빛이 퍼져보임 등) 수술 도중이나 혹은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눈앞에 여러 개의 점들이 떠다니는 비문증상은 수술 전부터 있다가 수술 후 비로소 증상이 느껴지거나, 또는 수술 후 유리체의 변화로서 나타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며, 특별히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다니는 점들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부분적으로 안 보이는 증상이 있다면 다른 병이 추가된 경우일 수도 있으니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매우 드물게는 수술 받지 않은 눈까지도 염증이 발생

하여 시력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일생동안 정기적으로 안과의사의 진찰을 받

으면서 합병증 특히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발생 여

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수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항상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